

교회소식

1.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함과 무료함을 영육의 균형 있는 생활로 강건하게 이겨내 시기를 소망합니다.
2.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7시 30분- 9시).
3. 2021년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는 다음 주로 종결합니다. 결승점을 향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범위: 사도행전 22-28장, 호세아 1-14장 (매일 3장)

4. 성전을 이전해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기쁨을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매일 저녁 9시).

기도 제목:

- 필요한 사람들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5. 임병숙 권사님을 비롯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바랍니다.
6. 이번주 수요일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7.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8.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November

교회사역일지

11월 2일(화)
다니엘 기도회
11월 21일(주일)
감사 주일
11월 28일(주일)
대림절 1, 성찬 주일

기도순서

11월 21일 (주일)
이정인 집사
11월 24일 (수)
-
11월 28일 (주일)
이광희 장로
12월 1일 (수)
박후임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46호 2021.11.14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Praise		
예배로부름	시 115:11-13	인도자
Call to Worship		
✧ 찬송	8장	다함께
Hymn		
✧ 참회기도		다함께
Prayer of Repentance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찬송	304장	다함께
Hymn		
대표기도		손조훈 집사
Prayer		
성경봉독	열왕기상 13:1-10, 18-22	인도자
Scripture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Choir		
설교	말씀으로사는 인생	이태한 목사
Sermon		
찬송	200장	다함께
Hymn		
헌금기도		인도자
Offering		
교회소식		인도자
Announcements		
✧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Closing Scripture		
✧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Closing Hymn		
✧ 축도		이태한 목사
Benediction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일본 사이타마현 강태영 선교사 소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월 이후 인도하신 저희 사역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 여름 캠프: 교회 안과 밖의 활동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못한 상황 가운데 작은 규모지만 여름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꺼려 하는 가운데 캠프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방역에 주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2. 18주년 감사 예배: 지난 10월 10일 주일에는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다 같이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은 18주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사랑의 동역자님들을 보내 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받고 또한 섬기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 지역사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3. 세례 준비반과 개인 성경공부: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다지마 유헤이 형제(중 3)와 김홍숙 자매가 세례 준비 공부를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며 세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형제는 8월에 교회에 연결된 형제인데 국립대인 사이타마 대학교 3학년생으로 저희들의 절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기도 응답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기 어려워서 사이타마 대학의 재학생이 연결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나카무라 형제가 교회에 스스로 찾아오게 하셔서 현재 개인 성경공부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부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매일 쉬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은혜받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2. 강태영, 채정미 선교사, 딸 예은이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소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나눔란

2021년 11월 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열왕기하 7:1-10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나병환자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온 성이 굶주려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 밖에 격리된 나병환자는 일단 성안으로 피하기는 했지만 성문 어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코로나처럼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9).

1) 어떤 현실에서도 살려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합니다: 나병환자들은 누구보다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살려고 애썼습니다(4). 나병환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지만 “살아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면 반드시 얻습니다(마 7:7). 어떻게든 살려고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하셨습니다(6).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그것과 다릅니다(사 55:8).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이야기인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깁니다. 성경은 역사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 쓸모 없는 나병환자들이 살아보려 했을 때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2) 환경을 탓하기 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말했습니다(3). 필립 안시(Philip Yancey)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원재료를 사용하셔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우리는 원재료 탓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최악의 원재료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마 5:5) 아무리 가난한 원재료로 태어났어도 그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훌륭한 원재료를 갖춘 바울은(행 3:5)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원재료를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행 3:8). 나병 환자보다 나의 원재료가 더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원재료를 탓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다: 나병환자들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9). 철저히 버림받았던 이들이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요 10:10).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화라고 말했습니다(고전 9:16).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눅15:7). 사람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Covid 19의 확산이 중지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2. 선교 현장과 교회가 Covid 19 이후의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